

불모지에 떨어진 새누리 이정현·민주통합 김부겸

“광주-대구發 선거혁명 확산”



4·11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상부인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과감한 도전’ 당락 여부 떠나 신선

4·11 총선에서 여야의 전통적 텃밭인 광주와 대구에서 의미 있는 정치실험이 나온 후보들이 있어 이들이 단 한 번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허용하지 않았던 광주 민심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민주당 ‘일당 독점’에 열증을 느낀 일부 유권자들도 여당 후보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의 지지율은 10~19%대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 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 11만여 유권자로부터 720표(0.65%)를 얻는데 그쳤던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회망’을 보고 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예산을 지켜내

고, 지역 예산 반영에 앞장서 온 점을 알고 있는 공무원과 일부 단체들이 이 의원에 대한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일 열린 이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진보성향인 장만재 도교육감과 중앙당에서는 관계가 끊어지다시피한 한국노총 고위인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계자인 이명자 전 광주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여기에 ‘일당 독점’에 대한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광주 민심도 이 의원을 고무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23년 동안 노란색 일색인 땅(민주당)에 파란 색(새누리당) 하나를 띄우겠다”며 ‘광주 선거혁명론’을 역설하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남에서는 야당 성향의 김두관 도지사도 나왔고, 부산에서는 기존 재선 의원 외에 5~6명의 야당 의원이 더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호남지역 표심 변화에 기대감을 표했다.

민주당의 ‘불모지’이자, 새누리당의 심장부에 떨어진 김 최고위원의 경우도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이 상당하지만 캠프 분위기는 활기차다고 전했다. 애초 환영받기 어려운 사지(死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작은 호재에도 희망을 갖는 분위기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왕성하게 지원 사격을 하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 초반인 만큼 지지를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 측은 본격적으로 유권자 속으로 들어가 바락 민심을 누비며 진심을 전달할 경우 그동안 깨지 못했던 ‘지역주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檢,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

현직 국회의장 사상 첫 사법처리

전대 돈봉투 수사 종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한나라당 전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

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한나라당 전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정치권을 뒤흔든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에 따라 야권 등으로부터 ‘숨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고 의원실 외에 다른 의원실의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낸 게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수석비서관은 2008년 7·3 전대를 앞둔 7월 1~2일께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남뉴스

민주, 중소기업부 신설 추진

중기정책 발표…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확대

민주통합당은 21일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와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외청이어서 정책조율이 곤란한 데다 인력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벅하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이 이 업종에 진출

했을 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고, 권고사항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토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0~8시에서 오후 9시~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매월 1~2일에서 3~4일 이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 지방의원 후보

민주, 22~24일 공모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은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여수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를 22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후보 공모 대상 선거구는 여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 4곳이다.

이낙연 전남도당은 “여수시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 방식은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 등을 놓고 지역위원회 입장과 현지 여론 등을 들어 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전남도당(www.jn-minjoo.kr·062-225-1219)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선 복지공약 정부-정치권 충돌

김총리 “票플리즘 공약 심히 걱정” 여야 “정치권 때리기 급급…몰염치”

정부와 정치권이 4·11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복지공약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분석을 토대로 정치권의 복지정책 공약을 재전 건정성을 도의시킨 ‘포플리즘’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자 여야는 정책 공약 사항에 정부가 개입할 일

이 아니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황식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각종 복지공약 이행에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전날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분석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기재부 2차관은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도 부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민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며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게 처음 있는 것”이라며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자세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을 파탄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강구하는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하다”고 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하야” 황주홍 9년전 칼럼 논란

“당시 일반 정서 대변한 것일 뿐” 해명

민주통합당 황주홍 영암·강진·장흥 예비후보가 9년 전 대학교수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칼럼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영암·강진·장흥 일부 예비 후보 등에 따르면 황 후보는 2003년 10월 당시 참여정부의 해신론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명의로 중앙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위기

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의 원인인 노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직을 떠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칼럼에서 “이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 주변의 해신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해신”이라며 “많은 국민은 오늘의 국정 난맥이 대통령의 자질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대 황 후보는 “칼럼을 쓸 당시에는 일반적인 정서를 대변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정서가 변했고, 저도 (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9년 전 칼럼을 지금에 와서 문제로 삼는 것은 저급한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 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통영동(근린시설) 대1181㎡,전2850㎡ 강정가 31억9천 최저가 14억3천	통영동(근린시설) 대510㎡,전3343㎡ 강정가 39억3천 최저가 27억5천	수기동 [12층관공호] 대923㎡,전7588㎡ 강정가 74억8천 최저가 18억7천	경북구미[골프연습장] 대51503㎡,전7399㎡ 강정가 112억6천 최저가 38억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대전(웨딩홀) ☞ ▷대지 958평 ▷건물 5346평 ▷감정가액 222억9천 ▷매매가액 130억(협의후결정)	☞ 광주 쌍암동(유흥시설) ☞ ▷대지 1520평 ▷건물944평 ▷감정가 89억7천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	☞ 해남 명골초등학교 ☞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 군산 바이오디젤공장 ☞ ▷대지 3025평 ▷건물 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43억 (협의후결정)
☞ 용봉동(하미스포레) ☞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 곡성석곡 공장 ☞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정가 44억3천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 전북완주 봉동 공장 ☞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 순천 조래동(주차빌딩) ☞ ▷대지 646평 ▷건물 1708평 ▷감정가 43억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원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곡역사아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현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수기동	대923.217588	7496평	1897천	관공호	수성동	대1005.21130	695천	198천	4층도	하남동	대8862.212142	689평	44억	공정
중흥동	대2075.2112510	12497천	5596천	10층시공	남서동	대6017.211116	2193천	793천	3층도	나주동	대3395.212851	109평	496천	2층공정
평안동	대1181.212850	31999천	1493천	3층근린시설	월곡동	대341.21993	793천	491천	3층도	담양동	대1504.21753	393천	199천	단층공정
신안동	대445.211088	10943천	496천	4층근린시설	목포동	대48.21308	192천	6천7백	음식점 상가	영광동	대3442.21793	1194천	591천	단층공정
평안동	대510.213343	39944천	2795천	1층8층근린시설	개동	대201.21471	1994천	699천	1층상가	담양동	대1974.21833	695천	495천	2층공정
수안동	대476.21700	10977천	795천	2층근린	신안동	대74.21149	392천	194천	2층상가	군산동	대3596.211871	1896천	1498천	5층공정
목포동	대872.21929	129천	593천	2층근린	전주동	대81.21517	3977천	192천	3층상가	영광동	대7837.2182	995천	696천	1층공정
개동	대175.21638	49천	295천	5층근린	동구	대304.211002	1094천	496천	4층목욕,수피외	담양동	대4216.211988	219천	1197천	2층공정
평안동	대210.21414	49천	295천	4층근린	우산동	대133.21287	792천	196천	노래방	대동동	대3318.212171	1693천	1194천	2층공정
군산동	대6783.214024	269천	699천	4층매식장	신안동	대445.211088	1094천	496천	4층근린시설	군산동	대6750.213478	309천	1594천	단층공정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책/재개발	박미란팀장 010-9900-3002	근린주책	박미란팀장 010-9900-3002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전)과정」 1학기(15주) 수강예약 2012년 2월 25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광주대앞(지하)호프.분식60평 ·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2칸 ·계림동 이마트 1층 1칸	전체매매가 2억5천3백 대출+보증금 공제후 실인수가 3천5백만원 상당 010-6654-6888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옥상)임대 구함

위 치 전남지역. 대불공단우선

면 적 지붕 및 옥상면적5,000㎡

(1,500평)이상

임대조건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임 대 료 별도지급

사 업 성 10,000㎡(3,000평)기준

년1억원 순수익

무안읍 휴게소

무안을 입구 휴게소 대지 4.666㎡(1,412평).
연면적1,130㎡(342평).식당.매점.
현재영업중.매매가 9억원.

Tel : 대표.062-233-2222
직통062-373-3939. HP : 010-3616-8698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해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무안 신북동, 대인동 소재지전남)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복합상가(매매)

- 봉선동 1층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보통층20억 월임대료1,200만원
- 봉선동 1층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보통층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120평 평당 790만원(9억5천만) 임대보증금 8,000만원 월임대료 500만원
- 전일동 5층월임대 건물(건물평수 350평) (매가15억8천) 임대보증금9천만원/월임대료300만원

토 지(매매)

- (상무지구)1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연휴가능 신당영업중)
- (상무지구)1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유흥가)
- (상무지구)3,400㎡(약1,900평) 평당750만원(시청앞)
- (회사사무,오피스빌드 전용)
- (동림지구)준주거지 50만~51만 2대토면4,470㎡(약1,352평)~평당330만원(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따무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122. 현 011-609-8221
(상무지구 이버동 김지랑 1층)

행복한 공인중개사 (새민권,변산반도 편선 전문)

■ **계곡 원룸, 펜션, 다세대주택 부지**
2중주거지역, 대 2334㎡ 매 12억
현도로접, 계획도로 개통시 지가 상승
특 클 투자 유형 현재 원룸 등급 부속
여름 한달만 영업해도 년수익 보장

■ **상록해수욕장 펜션 부지**
계곡관리지역, 대 1554㎡ 매 10억
상록해수욕장 입구 2차선에 접한 토지
로서 향후 지가 상승 비대 조망권 일호

■ **계곡 공항 이순신세터장 펜션 부지**
계곡관리지역, 전 1654㎡ 매 7억
오토경기장에 위치한 토지 펜션 운영
시 고소득 보장, 비대 조망권 최상

■ **상록해수욕장 펜션건물**
대 942㎡, 전 264㎡ 매 9억
신축 건물, 객실 7개소 월매출
약1500만 성업중

■ **계곡 체석강 호텔 및 리조트 부지**
자연환경보존지역, 전 2895㎡ 매 60억
5층건물, 인허가 완료 변산반도 최고
의 상업지 비대조망권 최고!
향후 토지지가 상승 기대 및 운영시
고소득 보장

■ **상록해수욕장 리조트 부지**
계곡관리지역, 대 6798㎡ 매 50억
새민권에 근접한 토지 지가 상승 물
론 향후 사업시 고소득 보장

저희는 변산반도 펜션 개발
전문 업소로서 펜션 운영시 투
자 대비 년소득 25%이상
보장된 것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시내권 원룸도 3배 이상
의 수익이 보장된 펜션 사업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062-952-5960. 010-8004-5900